



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,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3년래 최고치 기록

왕양비 연구원

- 지난 7월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6.4% 상승해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 - 올 2월까지 5%를 밑돌았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월부터 5%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어 6월에는 6.4%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
 - 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월 5.3%, 4월 5.4%, 5월 5.5% 등으로 각각 전월대비 0.1p% 가량 상승률이 높아졌으나, 6월 들어서는 전월대비 0.9p%로 상승폭이 커짐.

-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료품 부문에서 돼지고기를 비롯한 식료품가격 급등이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폭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편, 비식료품 부문의 가격 상승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.
 - 국가통계국이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체적인 구성항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, 중국 가정의 엔겔계수가 대부분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구성항목에서 돼지고기(10%)를 비롯한 식료품 비중이 30%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- 동 기관에 따르면 6월 동안 식료품 부문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4.4%, 특히 돼지고기 가격은 62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- 한편, 비식료품 부문 가격이 3.0%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돼지고기 가격급등에 따른 식료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린 주요인으로 판단됨.

-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통화당국의 긴축정책으로 6월 이후 물가급등세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, 다른 일각에서는 식료품가격 하락 가능성이 당분간 높지 않아 올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.

-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과잉유동성이 중국 인플레이션의 근원으로 보고 있으며, 일련의 긴축정책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6월 이후에는 하락할 것으로 봄.
- 그러나 식료품, 특히 돼지고기와 같은 일부 식품 가격이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, 날씨변화에 따라 식료품 가격 변동도 심해 소비자물가지수 예측이 어려움.
- 한편, 다른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돼지 사육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사육된 돼지의 출하가 올 연말부터 가능하며, 농촌주민의 도시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식료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하반기 식료품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임.

(붕황 재경 보도, WSJ 7/11 등)